

# 역사 교과서의 왜곡

김영우/SBS라디오 방송국 PD

**일** 본의 역사교과서 수정을 둘러싼 문제로 한국과 일본이 점점 갈등을 겪고 있다. 일본은 검정을 통과한 역사교과서를 정부가 나서서 수정하라고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이야기 하면서 한국이 양보를 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한국은 이른바 주변국가 조항을 근거로 정부가 수정을 요구할 권한이 있으니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부분을 고치라고 주장하면서 일본의 왜곡 역사교과서 문제에 매우 흥분을 하고 있다.

물론 왜곡 역사교과서에 대해 한국만 분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과 북한도 한국 못지 않게 일본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에게 침략을 받은 대만과 동남아시아 각국들도 이 문제에 대해 일본이 잘못하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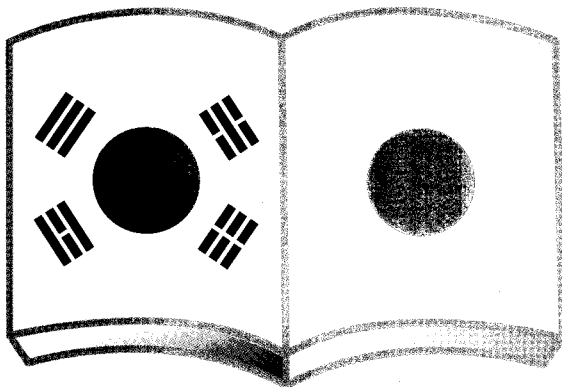
우리 언론도 매일같이 일본 정부의 성의없는 행동을 비난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정확하게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왜곡 역사교과서 수정에만 매달려서는 안된다고 본다. 왜곡 역사교과서는 자라나는 일본의 주역들에게 그릇된 역사관을 심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시정을 요구하고 있고 왜곡 역사교과서 시정은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는 일본정부가 주변 국가들의 반발을 무릅쓰면서까지 강경하게 버티기로 나오는 배경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역사교과서 수정문제만을 부각 시킨다면 더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말이다.

일본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알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 일본의 국민들 중에서 60%가 넘게 역사교과서를 수정하는데 반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역사교과서를 수정하라고 우리나라가 요구하는 것은 일본의 내정에 간섭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얼마전 보도되었다. 최근 일본이 헌법을 수정하고 군대를 가지려고 할 때 많은 국내의 전문가들은 국



가적 자존심 회복을원하는 일부 일본인들의 생각일 뿐이며 시민의식을 성숙시켜 온 일본의 양심적인 국민들이 그대로 바라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었다. 이런 생각이 과연 아직까지도 유효한 해석인지 살펴 봐야 한다.

다음으로는 단일국가로는 미국 다음의 경제대국인 일본이 걸맞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많은 일본 국민들 사이에 퍼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현재 일본이 세계에 기여하고 있는 정도가 엄청난데 이젠 목소리도 높이고 요구할 것이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도 역시 소수 일본인만의 생각일 것이라고 봤는데, 이번 여론조사는 많은 일본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중국이나 북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도 밀접한 연계를 통해 일본의 다른 측면에 대해서도 면밀히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 PPFK